

조지 페이튼 박사, 성경 번역, 세션 24,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진술

© 2025 George Payt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번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조지 페이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진술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번역 과제, 즉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진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사적 질문을 생각하지만, 수사적 진술은 자주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경 번역자와 성경 해석자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언어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인가요? 또는 손님이 언제 오시나요? 빵을 몇 개 사시나요? 짐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종류의 정보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 행위 이론을 살펴볼 때, 조금 좀 건네줄래?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중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질문은 누군가에게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받고, 질문으로 대답하지만, 실제로 대답하는 질문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수잔이라는 젊은 여성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집에 있다가 엄마에게 TV를 볼 수 있는지 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V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요청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숙제 다 했어?라고 물어요. 이건 정보 요청이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집안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엄마와 수잔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는 것. 숙제를 끝냈다면, 답은 '예',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면, 왜 묻는 건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수잔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이든 아니든, 그녀는 숙제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TV를 봅니다. 아직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떠나고, 숙제를 다 마쳤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숙제를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표면적인 것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질문의 다른 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유형의 질문입니다. 많은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접한 모든 언어에는 수사적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적 질문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수사적이라는 단어는 수사학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사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이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와 같이 다른 언어에서 우리 언어로 번역된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36에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적

질문의 경우, 우리는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듣는 사람들은 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위의 이 특정 질문에서, 답은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결국 잃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간단한 질문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질문이 진짜인지 수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구절을 썼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수사적인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인가 수사적인가? 아마도 수사적일 것입니다. . 좋아요, 이건 어때요? 이것은 예수께서 군중 속에 계셨을 때의 경우이고,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 그를 만졌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이게 진짜 질문인가 수사적 질문인가? 저는 그것이 진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누가 나를 만지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15~20명 정도가 당신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진짜 질문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답하려고 했죠, 맞죠? 좋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만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만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7, 그리고 그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답은,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10,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할 때, 제자들조차도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질문이에요.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마태복음 13:27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씨앗을 심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일꾼들이 실제로 그것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질문은, 만약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이 가라지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4,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나 해를 끼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 합법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러낼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이제, 그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마가복음 4:30, 그들은 배 안에 있고, 폭풍이 있고, 예수는 잠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수사적으로 들립니다. 마가복음 4:30, 마가복음 4:4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는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는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의 바르거나 더 부드러운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4에서 그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화가 난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토라를 들을 수 있었고, 나중에 그는 영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그들에게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41에서 마가복음 4:40에 이어 바다가 고요해진 후에 그는 믿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게 진짜인가 수사적인가? 어쩌면 둘 다 약간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수사적인지 판단하기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 중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서는, 질문한 사람이 정보를 몰랐던 것처럼 들리나요? 제자들이 그 시점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실제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럴 만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진짜 질문인지 수사적 질문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말했는가, 또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는가? 꾸지람은 흔한 것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질문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왜 그것이 말해졌는지에 대한 해석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텍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내용의 단어, 그리고 사람들이 처한 맥락,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함수가 무엇인지 추론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 복음 3:23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골리앗은 전장에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군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므로, 너는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들은 모두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35, 예수께서 빌라도와 토론하고, 어쩌면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 말했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는 확실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좋아요,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실례합니다. 5:13과 14, 여러분 중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게 하세요.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손을 얹게 하세요.

그래서, 의미는, 누군가가 이런 식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식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것은 이런 수사적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무언가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전을

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말을 계속합니다 . 룯은 그것에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설을 읽었는데, 나오미가 이런 반어적 질문을 했고, 룯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그 답이 '예'라고 생각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질문을 한 목적이 그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것을 기대고 있었고, 주제를 꺼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제를 꺼내고 그 상황과 주제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 NIV와 NLT는 수사적 질문을 분석하고 진술문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안전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흥미롭네요. 좋아요. 마가복음 4:30과 3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할 것인가, 또는 어떤 비유로 그것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은 겨자씨와 같고, 등등.

그 경우, 예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머, 맏소사,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가 전에 말한 다른 것들에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그는 이런 전환을 하시고,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추거나, 초점을 맞추거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명백한 것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3살 아들이 바닥에 앉아 쿠키 항아리에 담긴 쿠키를 먹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 어때? 쿠키를 먹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 아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3살인데, 쿠키를 싹쓸이로 먹어치우고, 화를 내고, "아, 미안해요, 엄마."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그를 꾸짖고 있어요. 그녀는 정보를 요청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34,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악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17-20, 그들은 방금 5,000명을 먹이고 배에 올랐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 젠장, 우리가 못 가서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빵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은, 이해하지 못하느냐?였고, 그가 한 마지막 질문은, 정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질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가 그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마가복음 3장에서 한 다른 질문은, 믿음이 없느냐? 걱정이 있느냐? 아니면, 실례합니다, 마가복음 4장, 믿음이 없느냐? 그가 바다를 가라앉혔을 때 한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에게서 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누가 당신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게 했나요? 그것은 꽤 노골적인 질책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았나요?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는 그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감정이나 불확실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11과 12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며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은 영으로 깊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할까요? 저는 그가 영으로 괴로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느냐? 그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좋아요.

마가복음 12:17에 헛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 큰 헛간을 지어야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작물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중한 요청이나 제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실례합니다만, 비유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여자를 고치고 그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요.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할 이유가 뭐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이유로 꾸지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상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에서는 상사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제안이거나, 어이, 이걸 하자는 거야. 명령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더 a에 가까운 분위기로 말하는 거야. 응.

가정법이라는 용어지만,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진짜인지 수사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적 질문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론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제시한 목록은 아마도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사적 질문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왜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대상 언어에 수사적 질문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수사적 질문이 없는 언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수사적 질문이 대상 언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수사적 질문을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요점 1, 요점 2, 요점 3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그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목사가 와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예요?라고 묻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작업하는 대상 언어에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 수사적 질문이 있는지입니다. 수사적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성경에 있는 질문처럼 기능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질문 중 일부는 대상 언어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수사적 질문을 하고, 질문의 의미가 목표 언어 화자에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질문의 형태로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미비아에서 사람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구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5~6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을 낭독한 노인의 녹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었고, 그런 다음 그가 한 말을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어 중 하나인 힘바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바 남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일련의 질문을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수사적이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것이 수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나히(Nahi)는 힘바어 표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수사적으로 묻는다는 뜻이죠, 맞죠? 그리고 심지어 그 억양조차도 그가 질문을 던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무언가를 묻고 그것이 뻔한 대답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내 상사인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니요, 당신은 상사가 아닙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corny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Orma에서는 Ur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은 이 질문들이 수사적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입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스와힐리어로 또 다른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제이.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은요? 그러면 그들은 내일이라고 말하겠죠, 제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수사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 언어에서 이러한 수사적 질문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것을 연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말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질문으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소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문제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문법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 사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수사적 진술이나 지시는 영향이나 효과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적 진술은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수사적 질문은 강조나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적 진술 또는 수사적 지시.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나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고,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해. 그는 네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효과를 위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혼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것을 진술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고 난 무렵, 예수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도록 의도적으로 이를 더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랍비, 유대인들이 방금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고, 당신은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헤롯이 당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그 여우, 그 작은 꼬마, 나는 헤롯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는 말했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지, 나사로는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없어서 너희를 위하여 기쁘노니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므로 디디모라 불리는 쌍둥이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그건 수사적 진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읽는 방식은 다소 단조롭습니다. 강력한 수사적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읽을 때는요.

그리고 가끔 당신은 그것을 읽고, 당신은, 좋아, 그게 뭐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계속합니다. 당신은 그가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가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시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 거라고.

그게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때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하죠, 당신이 죽을 거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갈 거고, 나도 죽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얻지 못해요.

이것은 종종 놓치는 수사적 진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실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남자.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불신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검토하는 문제일 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적 진술인가? 수사적 질문인가? NLT는 수사적 질문으로 만들고,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슨 뜻인가?"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 물음표를 붙이세요. 영어에서는 강조하기 위해 음성 억양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페이지에서 정적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예수가 "만약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는 문자적 진술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수사적 진술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격려한 문자 그대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 텍스트에서 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살펴보면 그것은 합법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와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잠이 들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은 매우 무거웠고,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택합니다. 사이먼, 잠자고 있니? 수사적 질문으로.

사실, 그리스어를 보면, 그것은 수사적 질문이나 수사적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물음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이먼, 당신은 자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사적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 번째로 와서 계속 자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계속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피곤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갔다. 유월절이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고, 그는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보라, 인자가 배반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미안해. 계속 자라고 한 시간과 일어나서 가자고 한 시간은 약 2 초야.

따라서 그가 그들에게 잠을 자라고 격려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영어 번역본이 이것을

번역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까? 흥미롭군요. 그들은 잠을 자고 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적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하세요. 당신은 실제로
그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리스어의 명령적 분위기입니다.
계속 자고 쉬세요.

흥미롭군요.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이 특정 질문을 수사적 질문으로
번역해야 할까요? 우리가 번역하는 언어에 수사적 진술이 없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수사적 질문으로 이것을
말할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영어 버전이 그렇듯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답은 '아니요' 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영어 버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정당화 또는 어떤
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수사적 진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질책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형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자가
의도한 수사적 효과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번역본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는 도마가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읍시다라고 말했을 때를 번역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합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토마스의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문구를 그대로 번역한 것 외에는 번역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다소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 그들은 마가복음 9장, 23장, 24장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며, 종종 불분명합니다.

NLC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수사적 질문으로 만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정말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뜻이냐?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을 더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말을 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적 효과가 바뀌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적 효과와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41의 대부분 버전은 사람들이 이것이 수사적 진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적 질문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사적 기능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진술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씨름하는 또 다른 번역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조지 페이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진술입니다.